

# 11 위령성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요한 11,25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성가대

주 제:	“ 깨어 있어라 ”	“ 대림 제 1 주일 ”	2008년 11월 30일
복음 묵상:	[마르 13,33-37]	[이사 63,16 ~-17.19 ~; 64,2 ~-7]	[1 코린 1,3-9]

사람들은 누구나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거나 아무 목적 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하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준비를 성실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때가 다 되어 뒤늦게 준비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사랑하는 삶을 뒤늦게 준비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후회일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마태 7,23)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오늘은 새로운 교회력의 첫 날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4 주간의 대림시기를 보내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탄생을 기념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 역사가 완성될 종말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며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공동체는 4 주간의 대림시기에 각자의 마음 안에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깨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이 대림의 시작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대구 문종배 신부님 강론 중에서)

##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축입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 성숙 리따 자매님, 3775 Flora Vista Ave. #210 Santa Claras, CA 95051  
(408) 616-0212

- 삼성으로 회사를 옮겼던 최 효훈 토마스(베이스)형제님이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젠 어느정도 한국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부인은 근처 유치원에서 영어 교사로 활약하고 아이들 또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프라노를 하던 이현아 베로니카 자매님도 만났으며, 모든 성가대원이 그림다는 말과 함께 각별한 안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잘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11/25 일 2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허경애 수산나 자매님이 오라버니 수술및 조카의 결혼 참석차 11/20-12/10 까지 여정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일 잘 치루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은 가족 상봉차 11/23- 12/2 까지 일정으로 한국으로 여행떠났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 지고 편안한 여행길에 주님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최주남 예로니모 형제님 친손주 백일 참석차 12/6-12/10 의 여정으로 동부를 다녀오십니다.

## 축개업:

**최 일해(다니엘)형제님과 최 정신(데레사) 자매님,**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하여 오던 식당을 드디어 11월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왕림하시어 맛도 보시고 좋은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장소: Sunny Bowl [1477 Plymouth St. #C Mountain View, CA 94043](http://www.sunnybowl.com)

시간: MON - FRI: Lunch 11AM - 2PM, Dinner 5PM - 8PM SAT-SUN: Close  
(650)380-6785



## 총회 공고

2009 년의 새해를 맞으며 지나온 2008 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새해를 준비하고자 다름과 같이 총회를 소집을 공고 합니다.

다 음

일시 및 장소: 2008 년 12 월 14 일 (일) 교중 미사후 연습실  
의제: 2008 년 회계보고 및 신임 단장 선출 및 기타

## 공지 사항:

1. 소식지에 그주의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한후 미사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2. 화답송은 매주 토요일까지 성가대 소식지에 실려 음원과 악보를 보내겠오니 꼭 해 보시고...
3. 성탄 특송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0824>

## + 복음 [마르 13,33-37]



그 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 주인이 돌아 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 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 1분 명상

♡대림 시기♡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 주간을 말한다. '대림'(待臨)이라는 뜻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이 용어는 '도착'을 뜻하는 라틴 말 '아벤투스'(Adventus)를 번역한 것이다. 오실 분은 물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이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시다.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새롭게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림 첫 주일에 한 해의 전례주년이 시작된다. 교회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올해 대림 시기에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열망하며 기다리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편 대림 시기는 종말에 오실 예수님도 묵상하게 한다. 이 분위기는 대림 첫 주일부터 12 월 16 일까지의 전례에 많이 나타난다. 성경 말씀도 '깨어 기다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12 월 17 일부터 성탄 전야인 12 월 24 일까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두 부분으로 묵상하게 한다.

대림 시기에는 사순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렐루야'는 노래한다. 사순 시기는 회개와 보속이 강조되는 슬픔의 기간이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림 시기는 기다림이 강조되는 희망의 기간이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알렐루야'를 노래하고 있다

오늘의 말씀 사항: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로마 12,12)."